

DU-도전학기 결과보고서

과제명	전시기획실습		
참여자	성명	소속	학번
		역사교육과	
		시각디자인융합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역사교육과	
		패션디자인학과	
지도교수 의견	‘동아시아의 향기.’ 이번 도전학기 프로젝트는 모든 요소가 어느 것 하나 전형성에 머무르지 않았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 수행이었다. 역사교육과 학생들과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전공 학생이 모여 이를 수 있는 최대의 학제 간 융합 프로젝트의 성과를 냈다고 평하고 싶다.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근거리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도했던 입장에서 이 팀의 4인 구성원이 보여준 노력과 그 결실이 보여준 진정성은 온전히 팀 전체의 노력으로 가능했음을 보증한다. 아이디어 회의, 중국·일본 답사기획 및 실행, 전시 기획과 실행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진심이 아닌 것이 없었고,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도전학기의 전시 프로젝트는 학과와 학교에 매우 큰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통해 혁신하고 창의적인 대구대학교의 모습을 학내 구성원들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향연’ 팀의 도전학기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더욱 새롭고 학제 간 융합을 시도하는 후배 학생들을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기간 동안 새내기 학생들 단체 체험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에게 ‘도전학기’라는 제도의 유용성과 창발의 효과에 대해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팀원들에게도 큰 보람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 대구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교직원들, 이웃한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다양한 인원이 전시를 진지하게 경험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다. 좁게는 팀원 개인이 아무런 가이드가 없는 프로젝트를 처음 아이디어부터 결과를 직접 내는 ‘창조’를 해냈다는 값진 경험이 되었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박물관 학예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각각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큰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넓게는 학과와 학교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와 자긍심 형성에 기여했다. 지도교수로서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꼈던 한 학기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도전학기’ 제도가 유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참여한 모든 팀원들의 멋진 앞날을 응원한다. (소속) 역사교육과		

1. 도전 과제 내용

팀원 성명	소속	담당 업무
	역사교육과	전시 기획 총괄, 전시 설명문 영문 작성, 예산 관리, 전시 홍보
	시각디자인융합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전시 포스터, 리플렛 디자인, 공간 연출, 비주얼 콘텐츠 제공
	역사교육과	답사 기획, 전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시 설명문 작성
	패션디자인학과	전시 공간 디자인, 전시 기념품 디자인, 의상 제작

가. 전시 홍보

: 학교 커뮤니티와 SNS를 활용하여 전시를 홍보한다.

나. 전시 진행

1) 전시물 설치

: 동선, 조명 등을 구상한다. 미리 전시장의 구조를 파악하여, 무엇을 어디에 배치할지 계획한 뒤 진행한다. 디자인 작업, 인쇄물 출력, 시공, 배치

2) 전시 진행

: 전시를 기획하고 개최함으로써 문화유산, 디자인, 박물관 전시 기획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전공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관람객 100명 유치를 목표로 한다. 방명록, 관람객 카운트, 후기 적는 포스트잇 존, 관람객 설문조사

3) 전시물 철거

다. 결과 도출 및 고칠 점 탐색

: 관람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작성

라. 전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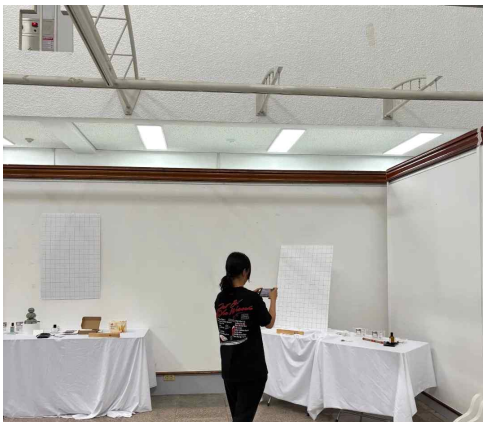
: 전시 준비, 과정, 이후를 모두 담은 전시보고서 제작

2. 도전 과제 수행 결과 및 성과

가. 팀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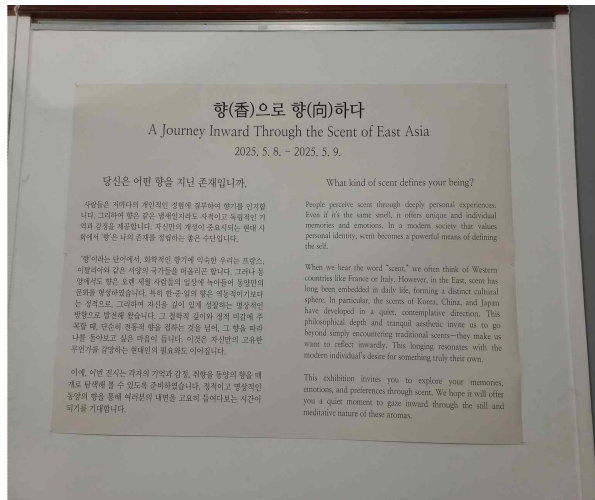
1) 가설치

: 5월 1일, 전시 일주일 전, 가설치 진행. 가설치를 해본 덕분에 부족한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본 전시를 매끄럽게 준비할 수 있었음.



2) 인쇄(인쇄물 디자인은 중간보고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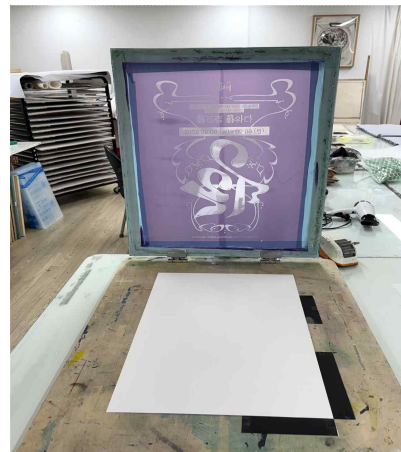
- 설명문



- 배너



- 포스터



- 리플릿



- 책갈피



3) 전시 홍보

(1) 포스터(전시 일주일 전, 각 단대 게시판에 부착하여 홍보)



(2) 인스타그램(팔로워)

: 총 21개의 게시물, 43명의 팔로워 보유

링크 - https://www.instagram.com/inward_scent?igsh=MWZxMjEwZ20yZGV0YQ==



@INWARD_SCENT

(3) 에브리타임



(4) 사범대 1층 TV(전시 일주일 전, 영상 게시하여 홍보)



4) 전시 설치

: 5월 7일 설치

5) 전시 진행

(1) 전시 실황 (전시 스케치 영상 참조)

: <https://youtu.be/RRYdALJsr2k>

(2) 나만의 향기 그림 그리기 체험 교육 프로그램 진행



(3) 기념품 책갈피 증정

(4) 전시 설문조사 (1일차 피드백을 2일차에 반영함)

: 피드백을 참고하여, 2일차에는 시향지를 안정감 있게 꽂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향을 덧뿌리는 주기를 더 짧게 했음. 그리고 남은 공간을 활용하여 명상할 수 있는 사색의 공간을 조성함.

(5) 방명록

6) 전시 철거

: 5월 10일 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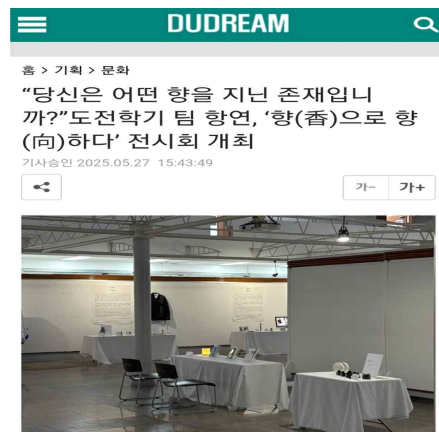
7) 전시 결과 기록

(1) 전시 설문조사 결과: 전시 전체 평점 4.9점 (5점 만점)

(2) 이틀간 관람객 302명 유치(1일차: 179명, 2일차: 123명)

(3) 대구대 신문 기사 투고

http://mdudream.daegu.ac.kr/news/articleView.html?idxno=6933&fbclid=PAQ0xDSwK7T9JleHRuA2F1bQlXMQABp4Bc6zY4LJHG6bMcgywF1_FZ2p_Ky2SGklTqxE8dATNs31XX-blzPdHygeqx_aem_DjGYHq-mUKOf0LLxhiXiwg



△ 전시회(사진='향연' 측 제공)

우리 대학 도전학기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대학 역사 교육과와 미술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팀 '향연'이 '향(香)'을 주제로 '향으로 향하다' 전시회를 개최했다. 해당 전시회는 지난 5월 8일부터 9일까지 우리 대학

8) 전시 보고서

나. 개인 성과

: 개인 최종 결과물에 함께 첨부.

3. 자기 평가

1) 이00: 도전학기를 통해 팀을 이루고, 함께 한·중·일 향 문화 비교 체험 전시를 직접 기획하

고 운영하며 실무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관람객의 반응을 보며 전시가 지닌 소통의 힘을 체감했고, 큐레이터의 꿈에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모든 과정이 배움으로 가득했던 소중한 기회이자 경험이었습니다.

2) 양00: 「향으로 향하다」 전시에 참여하며 시각디자인 전반을 담당하였고, 포스터·판플렛 등 인쇄물을 직접 기획 및 제작하였다. 실크스크린 기법과 다양한 인쇄 방식을 실험하며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타 전공자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경험했다. 도전학기를 통해 디자인과 진로에 대한 폭넓은 탐색이 가능했고, 실질적인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3) 이00: 전시 “향(香)으로 향(向)하다”를 기획하며 전시에 ‘역사’를 어떻게 유의미하게 녹여낼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 혹은 현재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과거를 재조명하는 것이 ‘역사’를 다루는 학문의 지향점이라고 느꼈다.

해외 답사 기획, 전시 설명문 작성, 전시용 웹 구축, 전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등을 맡아 준비하였다. 해외 답사부터 실물 전시 개최까지 모든 과정에서 협업의 중요성을 실감하여 조원들과 활발히 소통하였고, 전시 설명문을 작성하며 몰입을 유도하는 글에 관해 공부하고 작성하였다. 또한, 전시에 역사를 녹여내는 과정에서 역사를 더욱 입체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기쁨으로써, 기존 도전 과제 계획 당시 설정했던 전공 지식 활용 이해도 및 협업 능력 향상, 창의적인 교육 방법론 연구 등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감히 평가해 본다.

4) 권00: 도전학기 동안 동양의 향 문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상을 제작하고, 공간 조닝과 기념품 디자인까지 직접 맡으며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전공 역량을 실제 전시에서 구현할 수 있어 무척 뿌듯했고, 협업을 통해 전시의 흐름과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시가 완성되는 과정을 함께하며 디자인이 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체감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4. 최종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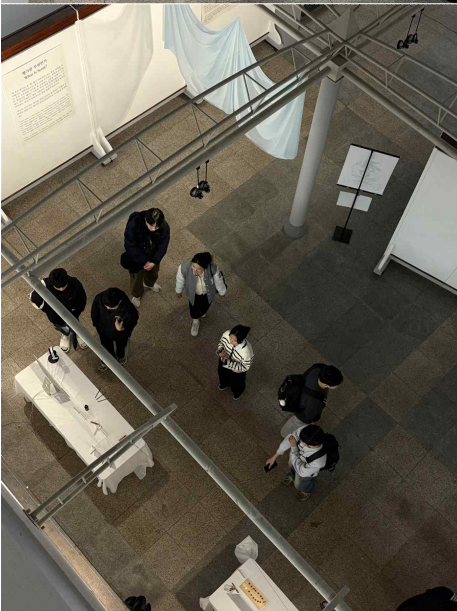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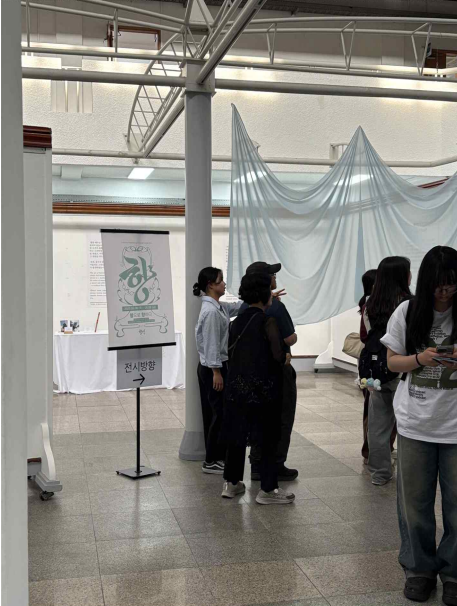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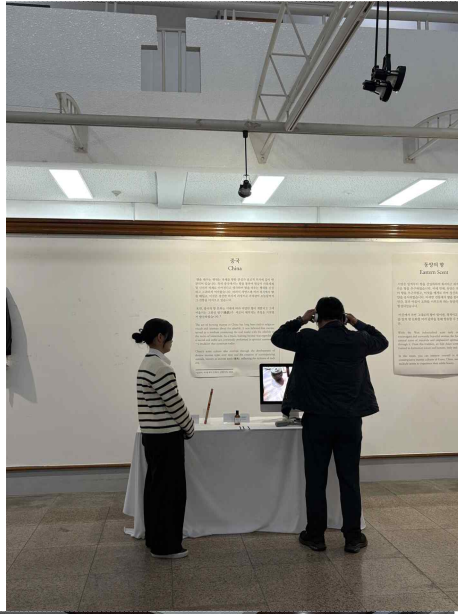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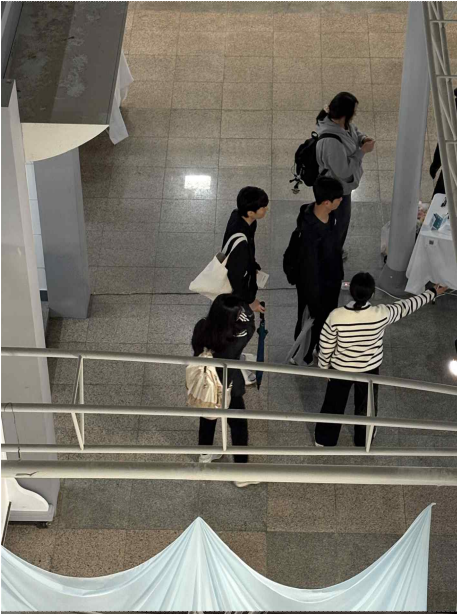
1) 이00

(1) 전시 구성 및 진행 총괄



(2) <https://youtu.be/RRYdALJsr2k> (전시 실행 영상 참조)

(3) 도슨트 활동 (전시 해설)



2) 양00

02 영상

EXHIBITION VIDEO

04 디자인

GRAPHIC DESIGN

개인 영상 작업



다양한 전통, 생활적 사생활이 향상을 키고 고는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향하는 시간의 가치와 향수에 스며들여오는 추억, 떠오르는 향기 등을 정리하여 바쁜 일상속 잊혀졌던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게 하고자 제작함

Chat GPT, 프리저니, 플랜지 등 다양한 AI 툴을 사용하여 전시물보다 전시도에 적합한 자유로 사색의 경험을 제반 하는 전시장임을 제작

포스터

'향'을 타이포그래피디자인을 통해 직관적으로 전달 + 전통향로의 이미지 사용



리플렛

릴 '향'의 소개와 전시순서, 중국/일본향 에 대한 간단한 설명



04 디자인

GRAPHIC DESIGN

TYPOGRAPHY DESIGN



COLOR SYSTEM



TEXT STYLE

ExtraBold 향으로 향하다
Bold 향으로 향하다
Medium 향으로 향하다
Thin 향으로 향하다

3) 이00

향(香)으로 향(向)하다
A Journey Inward Through the Scent of East Asia
2025. 5. 8. ~ 2025. 5. 9.

당신은 어떤 향을 지니 존재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향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향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향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향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향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기억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향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전시 설명문 작성

- 오프닝을 포함한 총 9장의 전시 설명문 내용 작성 및 디자인
- 동양과 웰빙이라는 전시 주제와 흐름을 고려하여 각 색상에 관련된 정보 및 의도하는 메시지를 전달
- 관람객들의 출입을 유도하는 데에 주안점

향 MBTI 유형 테스트

향 MBTI

Q1. 향기를 맡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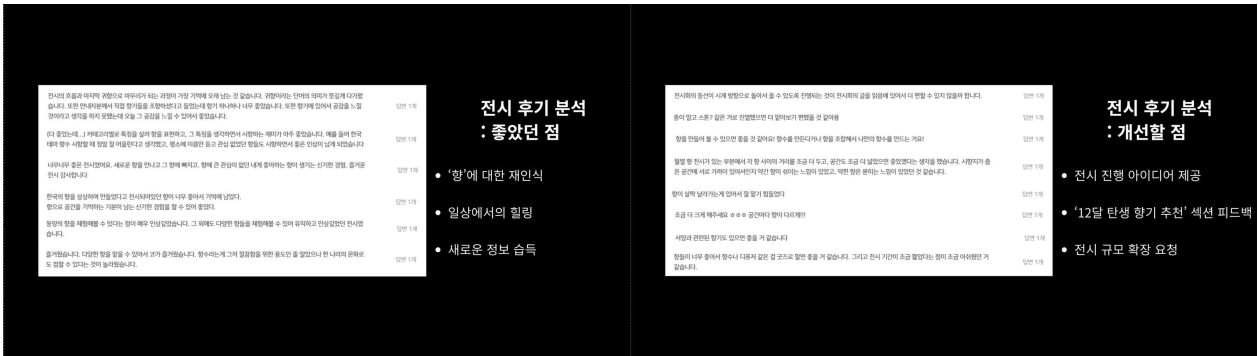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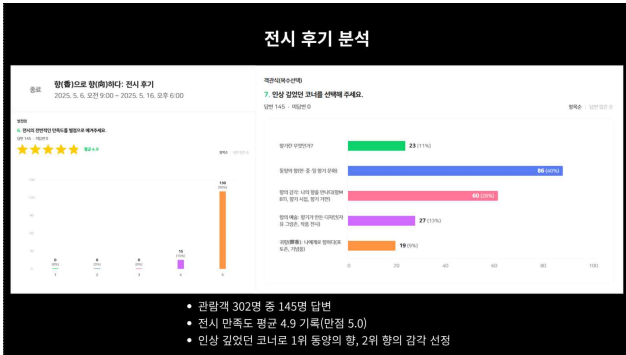
조용한 숲의 사색가

- 설문 제작 도구 '스모어'를 활용하여 향 MBTI 체험 UI 제작
- 8가지 질문과 8가지 결과 유형으로 구성
- 전시 후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으로 다수 언급

‘나만의 향기 그림’

- 전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향 사용의 역사적 배경 및 향의 기억과 관련된 특성을 주제로 하여 체험프로그램 구성
- 총 7회 진행, 62명 체험 참여

향기 그림 예시



체험 프로그램 기획서

체험 프로그램 순서

- 인사 및 체험 프로그램 소개(간략한 순서 안내)
- 향 사용의 역사
- 향과 기억
- 향료 시향
- 나만의 향기 그림 그리기
- 원하는 향 뿌려가기
- 마무리

-인사 및 체험 프로그램 소개(간략한 순서 안내)

안녕하세요. 전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000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만의 향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지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저희가 ‘나만의 향기 그림’ 체험을 구성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향이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해 잠깐 이야기해 보려 하고요. 이어서, 준비된 향을 하나 고르시고 시향한 후, 미니 캔버스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선택해 주신 향을 캔버스에 뿌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체험 중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향 사용의 역사

인류는 향을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사실 향은 토기나 벽화와 같은 유물이나 유적과 달리 후대까지 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문자로 남겨진 역사시대 이전의 향 문화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전 시에서 맡으신 향만 해도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빠른 속도로 날아가 버릴테니까요. 하지만 선사시대에도 인류는 좋은 냄새가 나는 꽃이나 나뭇잎 등을 이용하여 향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역사시대로 가면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인들이 지금까지도 자주 사용되는 향료 기술을 상형문자로 기록하여 향과 관련된 기술을 남기기도 하였고요. 이집트에서는 2500년경부터 미이라를 제작하였는데 이때 향과 함께 방부 효과가 있는 향료가 사용된 것을 통해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향료가 사용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전시의 중심이 되는 동양의 향, 특히 한중일 삼국에서도 오래전부터 향과 관련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중일의 향 문화는 특별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미와 깊게 연관되어 발전해 오기는 했지만, 종교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비시향과’라는 과일에 관한 기술이 전해지는데, 비시향과는 현대의 밀감(귤)을 의미합니다. 밀감 잎은 상록으로, 항상 좋은 향이 나서 고대에 귀하게 다루었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 전래기에 중국으로부터 향료가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는 이 밀감 잎을 이용한 향이 중요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향 사용의 역사가 참 오래되었죠.

향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아봤으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향과 기억

혹시 여러분들 중에 향수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어떨 때, 왜 향수를 뿌리시나요?

저는 향수를 사용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향수를 뿌린다고 상상해 보면, 저를 기억하게 하고 싶을 때, 어필이 필요할 때 사용할 것 같아요. 강렬한 향을 통해서는 단번에 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겠고, 부담스럽지 않은 은은한 향으로 무의식에 저를 남겨서 그 향만 맡으면 제 생각이 나도록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인상을 남기는 용도로 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향을 맡으면 특정 기억이 떠오르는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살짝 쿼퀴한 이불장 냄새 아시나요? 저희 외할머니덕에서 그런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 아직도 외할머니덕 풍경이 떠올라요.

이렇게 향은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 보셨듯이 후각이 기억과 연결된 감각이기 때문이죠. 후각은 비가시적이지만, 뇌의 인식 과정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기억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향을 통해 개인적이고 배타적인 기억을 제공받기도 하는거죠.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향은 오랜 시간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가꾸고, 드러내는 요소로 사용되었고, 또한 개인적인 기억을 담은 요소로서 추억을 불러오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향의 특징을 체험 프로그램에 녹이고자 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번 전시가 향을 통해 여러분의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만의 향기 그림’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향료 시향

이제 본격적인 체험을 시작할 텐데, 먼저 저희가 미리 준비한 향들을 맡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향은 ‘향의 감각’에서 보셨던 12달 탄생 향기 추천의 16가지 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천천히 향을 불러드리면 마음에 드시는 향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월-나무: 백단, 향백

2월-사향

3월-꽃:

4월-솔잎

5월-과일: 복숭아, 포도

6월-감귤
7월-박하
8월-약초
9월-분(빨래)
10월-계피
11월-호박
12월-바닐라

모두 결정하셨다면, 한 분씩 나오셔서 시향지 받아가겠습니다. 향을 맡아볼 때 건강에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나만의 향기 그림 그리기

캔버스 분배

이동하며 진행 상황 파악 및 요청 사항 확인

진행 중 어색하지 않도록 bgm 준비 혹은 일상적 대화 나누기

-원하는 향 뿌려가기

완성 후 뿌려갈 향 질문

주의점: 그림이 번지지 않도록 캔버스 빈 여백이나 뒤편 나무 부분에 도포

-마무리

간단한 체험 요약과 후기 나눔 진행

4) 권00

전시공간 디자인

자연스럽게 전시장을 한바퀴 돌 수 있도록 동선을 계산하였으며 입장하자마자 전시 열람을 통해 집중력을 끌어내며 한,홍,담 전시를 돌아가기 전에 커튼을 사용하여 다른 공간같은 느낌을 주려 하였습니다.

의상 디자인

이 의상은 '한·홍·담' 세 나라의 전통적인 마음을 하나의 실루엣에 담아냈습니다.

일본은 워낙 담시를 다룬 경향이 강하므로, 그곳에서 느낀 복고함과 요요한 분위기를 문종계 문양의 한복 원단으로 표현해 기모노 스타일을 합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중국의 치파오에서 착안하였고, 퍼지는 곡선은 한복 치마에서 영감을 받아 조화롭게 풀어냈습니다.

아득 직접 기모노 문양 중독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성성하여 담아내고, 세 나라의 향과 감성이 이 의상 안에서 스며들듯 아우라져, 하나의 부드러운 흐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책갈피 디자인

책갈피 디자인은 처음에는 저희 전시 포스터와 비슷하게 디자인하여 저희 전시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의 창자 색상과 실루엣, 꽃을 베이스로 시안을 제작하였습니다.

향 디자인

향 디자인은 향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향의 이름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향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안이 나왔지만 총 4가지의 시안이 나왔지만 제작업체와의 조율로 마지막 4번째 시안인 INWARD_SCENT 로 최종 제작하게 되었습니다.